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에 대한 예비보육교사들의 담론 분석

Analysis of the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s' Discourse on the Professionalism of Music Classes for Infants and Children

여 선 옥¹⁾ 심 윤 희²⁾
Sun Ok Yeo Yun Hee Sim

I. 서론

전문가(Expert)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4).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이란 일차적으로 교육활동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요청이며, 교사가 교육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학생의 학습심리와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수방법에서의 전문성 및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의미한다(한수웅, 2007). 그리고 교사의 전문적 능력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수업 전문성이다.

수업 전문성이란 교사가 해야 하는 가장 주된 업무의 하나로 교사로서 수업을 안정성 있게 계획-실행-평가하고 실제 수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의미한다(김민성, 2012). 그러나 초·중등 교육의 경우, 교과 지식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교사의 교과별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수업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수업 전개(박은혜, 2003)와 교과나 교육과정의 영역 및 생활주제의 교육내용이 하루 일과를 통해 대·소집단 활동과 자유선택활동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초·중등학교의 '수업'과 달리 '활동'이라는 특별한 수업 방식을 갖고 있다(임부연, 오정희, 2009). 그리고 유아의 경험과 흥미를 중시하고 놀이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수업의 계획과 진행 및 평가 등이 유아교사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됨으로(임승렬, 2009), 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수업 전개 방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을 개념화하고 평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에 대한 예비보육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S시에 위치한 H대학 아동보육복지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Bogdan과 Biklen (2006)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예비보육교사들은 아직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이르다고 느끼고 있었고, 교사의 전문성은 학교교육의 배움과 현장에서의 경험과 경력이 더해져야 갖추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영유아 음악수업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에 대해 첫째, 영유아의 발달과 개인차, 흥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둘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영유아들의 흥미를 반영하여 주제중심으로 통합적인 교육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가르치는 교수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음악을 즐겨워해야하고, 음악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 악기를 배우며,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영유아들과의 음악 수업을 포기하기보다는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 보육교사를 위한 음악교육에 실질적인 방안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영유아 음악수업
(Music Classes Infants and Children)
전문성
(Professionalism)
예비보육교사
(The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
담론
(Discourse)

1)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강사, 제1저자
2)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교신저자
(sim1choi3@naver.com)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전문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수업전문성을 개념화하고 있다. 김안나(2013a)는 유아의 특별한 경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위하여 적절한 수업방법(교수·학습기술)의 사용과 주어진 실제수업(활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교사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수업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수업계획 준비능력, 수업전개 능력, 수업평가 능력, 자기계발 능력을 구성요소로 제시하였으며(권혜경, 2014), 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수업능력, 수업 수행, 수업 효과성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며, 수업내용을 명료화하고 구조화시켜 전달하며 다양한 수업전략을 사용하고 유아의 행동 및 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수업관리 능력이라고(김하중, 2015, 홍찬의, 2014) 정의 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일과를 통해 영유아들이 배우게 되는 것을 교사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가르치는 좋은 수업이라고도(사영숙, 2017) 개념화 하고 있다.

요약하면, 영유아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수업 전문성은 수업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구조화시키고, 다양한 수업 전략을 사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영유아들의 흥미와 즐거움을 증진시키며, 교사-유아, 유아-유아 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업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교사는 영유아의 전인적, 통합적 발달을 위한 교육 제공, 영유아의 현재 심리상태 및 발달상태에 적합한 상호작용, 잠재적 능력 계발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가져 오는 역할을 하므로(이경, 2002), 교과과정의 지식을 넘어 현장에 적용하는 실천적 지식 없이는 전문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영유아 교육 전반에 걸쳐 필요하지만 특히 음악과 같이 특정한 이론이나 연주 능력이 필요한 교과에 더 요구된다. 유아에게 있어 '음악'은 특정한 형식과 과정을 통해 습득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여선옥, 박수경, 2017), 유아들이 갖게 되는 음악의 미적 경험은 일상에서 얻는 다양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Dewey, 1934) 유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수임, 2012).

영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하루 일과 중 상당부분의 시간을 음악적 경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다(이인아, 이완정, 2015).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유아기는 음악교육의 황금기(Levinowitz, 2001)이며, 청각적 발달 및 음악선호도에 있어 민감기(이영애, 2010; Temmerman, 2000)이고 음악교육은 영유아들에게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창의력과 정서발달 그리고 음악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황인주, 김희진, 2008). 이와 더불어 음악교육은 영유아의 언어, 사회, 신체, 인지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친다(권은라, 2008; 김미정, 이숙희, 2011; 남옥선, 2007; 배희진, 2009; 정진원, 2012; 현정실, 2003).

그러나 이러한 영유아 음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것에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김소향, 안경숙, 2009; 박미경, 엄정애, 2008; 이효숙, 심성경, 2001; Lee, 2009), 그 이유는 교사 자신의 음악적 관심과 자신감 부족, 영유아 음악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미흡(박부숙, 임명희, 박운조, 2017; 엄정애, 송정, 박미경, 2009; 윤지영, 임승렬, 2011), 음악적 개념지도의 어려움(김난실, 권수현, 이승연, 2013; 박은영, 2012; 장은주, 2007)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활동이 개별, 또는 대·소집단의 자유로운 형태로 조성되고 실행되며, 다양한 영역들과의 통합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보다 교사들에게 익숙한 노래 부르기 중심의 대집단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김광자, 2004; 김소향, 안경숙, 2009; 방은영, 2009), 음악전문 특강 교사에게 음악수업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담임교사에 의한 음악수업은 축소되고 교사들은 점점 더 음악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유아교사들이 음악수업에 갖는 두려움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음악적 전문성에 대한 기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수경, 여선옥, 2018).

유아교육기관에서 음악활동이 영유아 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유아교육의 특성상 영유아들은 활동 자체가 수업이며(이미경, 이시자, 2014), 활동 간 영역의 구분이 초·중등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일어나며, 영유아들의 다양한 변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상대가 교사이므로 영유아교사를 통한 음악수업은 반드시 필요하다(장은주, 2007; Kim, 2004; Scott-Kassner, 1999). 그러므로

효과적인 영유아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음악적 능력과 자질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음악적 지식 못지않게 음악 연주능력, 청각적 인지능력 등의 음악적 기능이 증시되므로 다른 교과교육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되고 있다(장근주, 2011).

그러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는 반드시 이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현직 교사가 되어서 갑자기 형성되기 보다는 교사양성 기관에서의 교육과정에서부터 형성되고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Freire(2000)은 보육교사는 보모가 아닌 전문직 교사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별히 어린 영아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수행,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영유아 전 연령의 발달을 고려하는 수업의 전문성 또한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예비보육교사에게 영유아 음악수업을 위한 전문성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경험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보육교사의 음악수업 전문성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대부분이 음악수업 향상을 위한 효과성 연구로 이러한 연구들이 실제적인 음악 수업 전문성을 다룬 면에서 의의를 갖지만 음악 수업전문성에 대한 정의적 측면인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예비보육교사들의 목소리 즉, 담론을 통해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담론이란 한 시대와 사회에서 말하고자하는 시대적 함의를 포함한 공동인식의 집합적 결론일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방향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조희진, 2010). 또한 담론은 개인을 초월해 사회의 수많은 이해관계와 질서의 생성과정 속에서 공동의식과 실천방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의 행동의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원천이 될 수 있다(박재우, 2012).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한 사회의 특정 사안이나 이슈에 관해 재현된 담론을 통해 그 이슈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에 대한 예비보육교사들의 담론을 통해 음악 수업 전문성에 대한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예비보육교사들의 음악수업 전문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지도방안과 이를 통한 현직 교사들의 음악수업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예비보육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은 무엇이며, 이러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에 대한 예비보육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개별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Bogdan과 Biklen(2006)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념을 도출하였고, 개념 간의 관계와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코딩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보육교사는 S시에 위치한 H대학 아동보육복지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8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연구자가 지도하는 아동음악수업을 듣는 예비보육교사들로 사전에 연구의 의도를 밝히고, 이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예비교사들만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음악과 관련된 수업은 모두 처음 수강하였고, 아직 보육실습 경험은 없으나 어린이 집이나 아동교육기관에 봉사활동과 관찰 수업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

2.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유아 음악수업과 전문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

여자들의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에 대한 생각을 탐색할 수 있는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일대일 심층면담과 영유아 음악수업에 대한 개인저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사회적 현안을 반영하고 각 개인들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관련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방법이다(Seidman, 2006).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어보고자 개방적 질문과 반구조화된 질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구성하되 예비보육교사들과의 면담 시 상황과 반응에 대해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담당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 참여가 아동음악수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3월 첫째 주부터 6월 말까지였다. 8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3번의 개별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면담시간은 평균적으로 40분-50분가량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영유아 음악교육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과 필요성, 목적, 영유아를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3번 실시하였으며, 첫 번째 면담 시기는 아동음악 수업이 시작되기 전 3월 첫째 주에 실시되었고, 두 번째는 아동음악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배우는 중인 중간고사 이후 9주차에 실시되었다. 마지막 면담은 아동음악 모의수업을 경험하고, 학기 말 시험 이후인 6월 마지막 주로 시기를 구분하여 3회기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의 내용은 영유아 교육 전반의 전문성에 대한 생각과 예비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에 대한 생각, 음악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왜 필요한 것인지, 영유아 음악수업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표현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기와 핸드폰으로 녹음하였고, 면담 후 즉시 전자 작업 하였으며, 면담 시 현장노트를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 및 질문에 대한 예외적인 반응들을 추가 작성하였다. 또한 면담에 대한 전사와 분석 과정에서 의미의 명료화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직접 다시 물어보거나 메시지를 통해 보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에 대한 예비보육 교사들의 담론을 분석해보고자 예비보육교사들을 개별 심층면담 하고 그 내용을 Bogdan과 Biklen(2006)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념을 도출하였고, 자료들을 여러 차례 정독하면서 주제별로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자는 면담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말한 내용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해석을 요하는 해석적 질문을 통해 사실적 가치(김영천, 2013)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결과가 다른 대상들에게도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조건에 있는 예비보육교사 2명에게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고 이러한 결과가 본인에게도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받았다. 또한 현장에서 나타난 그대로를 파일에 담아 실제의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한 시각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자료 분석과 해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 1인과 질적 연구 전문가 1인의 검토과정을 거쳤다(Lincoln & Guba, 1985).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예비보육교사들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

1) '전문성'이라는 용어의 낯설음

교사의 전문성이란 보통 교사의 '전문적 지식(professional knowledge)',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전문성(professionalism)'이란 용어로 사용되는데 교사가 가져야 하는 지식과 그 지식 구성에 대한 관심은 '전문적 지식'으로, 교사가 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관심은 '전문화'로, 교사의 수행하는 일의 성격에 대한 관심은 '전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Carlgrén, 1999). 전문성은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Evans, 2008), 사회 구성원들이나 문화적 맥락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Hodges et al., 2011). 또한 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교사의 역할수행과 직결되며, 전

문성 인식 정도에 따라 교육의 질이 영향을 받는다(강원미, 문혜련, 2017; 모용희, 김규수, 2013; 최진령, 이연승, 2010)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비보육교사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은 현재 자신들이 보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아직은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있는 '전문화' 과정에 있기에 전문성을 이야기 하는 것에 매우 어색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문성은잘 모르겠어요. 웬지 전문성이라고 하면 뭔가 어떤 분야에 교수님처럼 잘 아는 그런 걸 이야기해야하는 것 같은데, 경험도 많구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학생이라 아동음악도 처음 배워보는 거고..... 전문성이라고 하니까 아직은 저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2018. 4. 25. 예비보육교사 7. 심층면담)

졸업을 한다고 해도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이론과 현장은 다르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고 하세요. 보육교사로 전문성을 갖추려면 현장에서 한 3-4년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8. 4.25. 예비보육교사 1. 심층면담)

'전문성'이라는 용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성'이란 말이 좀 더 딱딱하고 확고하게 느껴지고.....대신 '능력'이나 뭐 다른 단어가 좀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2018. 4.26. 예비보육교사 6. 심층면담)

앞에 제시한 사례와 같이 예비보육교사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보육전문가가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르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전문성이라는 것이 학교교육의 배움으로만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이 더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2. 영유아 음악수업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

수업은 교사라는 직업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에 교사들은 각종 연수와 학습공동체 등 다양한 재교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교과에 대한 교수 전달 기술이나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사영숙, 2016; 장운정, 황은숙, 201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수업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수업 전개(박은혜, 2003; Hedges & Cullen, 2005)와 교과나 교육과정의 영역 및 생활주제의 교육내용이 하루 일과를 통해 대소집단 활동과 자유선택활동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사는 영유아에게 음악수업을 하나의 교과로 분리되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총체적으로 경험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실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유아들에게 질 높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과 음악교육, 그리고 음악적 지식과 실제 활동 사이를 연결(Kim, 2004)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유아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영유아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의 특징, 흥미, 그리고 개인차이며, 이와 관련한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수업에 흥미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을 잘 관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연령이라도 반마다 아이들 특징이 다를 것이라 생각해요 좀 빠른 아이도 있고, 느린 아이도 있고, 또 그 연령에 관심 있어 하는게 다 다르니까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8. 3. 7. 예비보육교사 2. 심층면담)

일단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했

을 때 흥미 있어 하고 즐거워하는지 교사가 아이들의 요구를 아는 것이 전문성인 것 같아요.

(2018. 4.25. 예비보육교사 3. 심층면담)

음.....우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하고 다같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 하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는지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반응을 봐 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2018. 4.26. 예비보육교사 4. 심층면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잘하는 아이가 있고 좀 안 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교사가 잘 조율해서 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문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2018. 6.27. 예비보육교사 5. 심층면담)

앞에 제시한 사례에 의하면, 예비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영유아들의 발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하며(김태연, 2015), 영유아에 대한 지식이 음악수업을 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예비보육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영유아 발달에 대한 흥미를 아는 것이 영유아 음악수업의 전문성임을 이야기 하였다.

2)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야 해요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음악수업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으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교사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이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영유아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업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8. 6.28. 예비보육교사 2. 심층면담)

교사가 음악수업을 계획할 때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교사가 일방적으

로 정하는게 아니고 누리과정을 참고해서 관련요소도 찾아보고, 아이들에게도 적합 한지 생각하고 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018. 6.28. 예비보육교사 6. 심층면담)

한 가지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 연관 있는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춤을 추는데 음악을 듣고 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과 어느 것을 함께 어떻게 계획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18. 3. 7. 예비보육교사 1. 심층면담)

영유아들은 음악을 통해 언어, 신체, 인지, 사회성 등 전인적인 발달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다른 활동과 통합이 일어나면 영유아들에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계획할 때는 교사의 교육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2018. 6. 27. 예비보육교사 5. 저널)

영유아 교사는 이미 계획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교실에 충실하게 전달하는 ‘교육과정의 전달자(curriculum transmitter)’, 또는 ‘교육과정의 설계자(curriculum architects)’ 역할도 수행하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자신의 교실 상황과 영유아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는 ‘교육과정 개발자(curriculum developer)’ 또는 ‘교육과정 구성자(curriculum maker)’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염지숙, 2011; Aoki, 2005; Shaver, 2010; Shaver, Gilmore, & Banks-Joseph, 2008).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전문적인 능력은 아직 예비보육교사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예비보육교사들은 아동음악 과목 이외에 수강하는 여러 교과목에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이를 기초로 수업을 계획하는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잘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유아들에게 한 가지 활동만 제시하는 것 보다 음악 영역 간, 또는 음악과 다른 영역 간의 ‘통합’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더 효율적

임을 이야기 하였다. ‘통합교육’이란 개념은 유아교육분야에서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교육방법으로 유아의 발달 특성과 전인교육을 위해 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모든 활동 분야에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증가시킨다(최연철, 2007). 그러므로 통합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통합 활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통합 교수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3)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해요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는 교육과정과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방법과 교수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교사의 지식이며, 교사의 지식은 곧 교사의 전문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교사가 지향하는 목표나 지도하는 수업주제에 따라서 교수내용지식은 때로는 내용지식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교수방법이나 전략에 중점을 두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수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이라면, 교수내용지식은 교과수업에 드러나는 교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배경지식으로 교과내용지식, 교수법 지식, 상황 지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개별 교사의 실천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최승현, 황혜정, 2009). 이와 관련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은 첫 번째 면담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내용과 방법에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이는 영유아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은 음악적 이론과 음악의 각 영역 즉,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 악기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창작하기, 음악 극에 대한 이해와 교육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내용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방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때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빠르기라든지, 박자, 4분의 4박자, 이런

걸 교사가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 4.26. 예비보육교사 4. 심층면담)

교사가 음악 감상이 뭔지, 신체표현이 뭔지, 창작하기가 뭔지 이런 음악수업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아동음악 수업 듣기 전에는 그냥 음악 시간이 아이들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나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수업을 듣다보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18. 4.25. 예비보육교사 1. 심층면담)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하기, 음악 감상, 악기연주 등 영유아가 음악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교수방법은 좀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이론적인 부분들도 알아야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방법도 전문성이라 생각합니다.

(2018. 6. 28. 예비보육교사 2. 저널)

신체표현을 지도할 때 매번 같은 방법만으로 하면 아이들이 지루해 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지도방법을 많이 알면 그만큼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 4. 26. 예비보육교사 4. 심층면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지도방법 중에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 되는 것 같아요. 교사가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리드할 수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2018. 4. 25. 예비보육교사 7. 심층면담)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서 교수내용 지식이란 음악교과 내용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교사의 지식으로서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개념을 학습자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표상하는 방법이며(이경언 외, 2007), 음악을 가르치는 교

사에게 요구되는 교수내용 지식에는 일반 교과에서 요구하는 교수내용 지식과 더불어 연주능력이나 지휘, 청각적 인지 능력 등의 음악적 기능과 음악교수기술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김희숙, 2010; Ballantyne & Packer, 2004). 예비보육교사들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고, 교수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유아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을 교수방법과 구분하여 이야기 하였다.

3.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유아 교사는 음악수업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제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음악교육내용과 교육과정 교수 학습 방법을 적절히 통합하여 유아를 지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예비교사 시절부터 꾸준히 노력해야한다.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스스로가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워해야 한다고 하였다.

1) 교사가 음악을 즐겨워해야 해요

교사가 음악에 흥미를 갖고 즐겁게 활동해야 영유아들도 교사를 따라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관에 봉사를 갔을 때 교사의 관심에 따라 수업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는데, 특히 음악과 같은 수업에서 교사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해야하는데 스스로 즐겁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8. 4. 25. 예비보육교사 3. 심층면담)

저는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요. 특히, 신체표현 같은 것,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걸 좋아 하니까 아이들하고도 많이 할 것 같아요.

(2018. 3. 7. 예비보육교사 6. 심층면담)

교사가 클래식을 너무 싫어하면 그 음악을 영유아들에게 잘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들은 클래

식 음악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 6. 27. 예비보육교사 7. 저널)

음악적 지식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스스로 자발적이지 못하고 의무와 책임감으로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음악이 즐겁다고 하거나 음악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상황은 고스란히 영유아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예비보육교사들은 처음 면담을 진행 할 때부터 유아들의 흥미와 함께 교사의 흥미와 관심이 중요함을 제기 하였고, 음악을 즐기는 나름의 방법들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2) 음악적 능력을 키워야 해요

영유아 교사는 영유아들에게 음악을 소개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장은주, 2007), 영유아들의 음악활동에 경험의 질을 결정한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의 방법으로 예비보육교사들은 개인의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악기를 배워야 하고, 음악의 이론적인 부분들도 공부해야하며,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경험할 수 있고, 음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예술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아노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유아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줄때도 정확하게 음을 알려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악보도 볼 줄 알아야 수업하는데 도움도 되고 하니까요.

(2018. 3. 7. 예비보육교사 4. 심층면담)

악기 한두 개는 다룰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피아노나 우크렐레, 그리고 솔직히 캐스터네츠나 뭐 그런 악기들도 다룰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2018. 4. 26. 예비보육교사 5. 심층면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음악 이론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뮤지컬, 음악회 등 여러 음악적 경험을 하면서 안목을 좀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음악적 감각이 생기게 되면 영유아들을 지도할 때 많은 아이디어가 생겨 좋을 것 같습니다.

(2018. 6. 28. 예비보육교사 6. 저널)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악기를 배우는 것이라 하였고, 다양한 악기 중 영유아들과 노래 부르기를 할 때 반주매체로 사용할 수 있는 피아노와 우크렐레의 연주능력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은 예비보육교사들의 담론은 유아교사들은 자신의 음악적 역량의 부족함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악기연주실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수실제 부분에서 유아음악교육을 위한 현직교사의 피아노 연주능력과 연주능력 인식이 음악교수불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박수경, 여선옥(2018)과 장정륜(2013)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을 갖는다. 또한 악기연주의 실력은 동요를 반주 할 수 있을 정도를 원하였고, 그 외 타악기 연주방법을 아는 것도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음악적 이론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예비보육교사들이 이야기 하는 음악적 이론은 각 음악영역의 교수방법과 음악적 개념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악보를 읽을 줄 아는 것이 음악수업의 교수방법과 음악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즉, 예비보육교사들은 악보를 보고 연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음악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며, 이것은 단 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야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뮤지컬과 음악회와 같은 예술적 경험이 음악을 선별하고 수업을 계획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3) 동료교사와의 협력이 필요해요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료교사와의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담론은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되었을 때, 교사의 음악적 전문성이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자신 없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음악수업의 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제가 만약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옆 반에 잘하는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못한다고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또 제가 옆 반 선생님보다 잘 하는 게 있으면 그건 제가 도와드리면 되구요.

(2018. 4. 26. 예비보육교사. 2. 심층면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는 것에 얽매이기보다 해결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사들끼리 서로 도와준다던지.....

(2018. 4. 25. 예비보육교사. 5. 심층면담)

동료장학이란 둘 이상의 교사가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한 사항을 서로 조언하며 전문적 관심사를 토의함으로써 자신들의 전문적 성장을 위해 함께 연구하는 협동적 과정이며(Glatthorn, 1997), 수업개선과 전문적 성장을 위하여 서로 어울려 노력하는 동료적 협동의 과정이라고 하였다(정태범, 2002). 또한 동료장학을 통해 교사들의 교수기술과 전략 등 상호간의 장점을 공유하고 개선점과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함으로써 동료 간 신뢰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교사학습공동체와 같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협동심과 동료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임부연, 이정금, 송진영, 2014). 교사들은 외부의 장학자나 전문가보다 동료 교사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용이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비보육교사들 또한 수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교사 간 돕는 일을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전문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어색하고 낯설어 하였다. 그 이유는 예비보육교사들이 아직 배우는 과정 중에 있고 스스로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전문성’은 학교에서 자격을 취득 한 후 현장에서의 경험이 더해져야 비로소 갖추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Bradbury, 2012; Tschannen-Moran, 2009), 교사의 소진이나 이직을 막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 뿐 아니라 교사의 만족도를 높인다(Pearson & William, 2005), 그러므로 교사에게 있어 전문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일순간에 형성되거나 자리 잡기보다는 교과교육학적 지식과 본인의 교직경험에 의한 실천적 지식의 끊임없는 반성적 사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교수행위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며,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 연찬과 노력이 필요하다(김안나, 2013b; 임동호, 2012). 그러므로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예비보육교사 시기부터 전문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앞으로 교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교과목을 배우는 과정에서부터 정체성을 갖게 되며, 예비교사로서 앞으로 하게 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이러한 일을 위해 수행하는 많은 일들에 내재적인 동기화를 이루어 결국,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하여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보육교사들은 처음 면담을 시작할 때 ‘전문성’에 대한 용어 자체를 많이 낯설어 하였고 아직은 ‘전문성’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아님을 표현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용어 대신 자신에게 적용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전문성의 구성요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성을 이야기하기 전 ‘전문성’자체의 인식에 대해 논의 한 것은 앞으로 함께 생각할 영유아 음악수업을 위한 전문성에 대해 예비보육교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비보육교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과에서 요구되는 내용지식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비보육교사 스스로가 앞으로 보육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꿈꾸며, 교직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둘째,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 음악수업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영유아들의 발달과 흥미, 개인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수업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야 하며, 수업 계획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영유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수업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영유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유아들이 수업 내용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교수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영유아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예비보육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영유아 음악수업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대상에 대한 지식, 교과과정에 대한 지식과 계획 능력 등 무엇을 아는 것, 즉, 지식과 연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수업을 계획하는 것을 교사의 전문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영유아 교육에 있어 교사의 수업 관리 능력은 교과에 대한 내용 지식을 알고 단순히 주제에 맞게 계획을 하는 것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까지 포함하여 매우 유연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들에게 음악이 주는 즐거움, 기쁨, 움직임, 자유, 창의성, 표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여 계획되기보다 이를 효율적으로 참고하여 영유아와 교사,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나만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자(염지숙, 2011)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훈련이 예비보육교사 양성 기관에서부터 시도 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예비보육교사들은 음악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첫째, 교사 스스로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야 한다고 하였고 둘째, 음악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악기를 배우고, 음악 이론 공부를 하며,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함으로

음악에 대한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이러한 노력을 하여도 채워지지 못하는 전문성에 대해 음악수업을 포기하기보다 동료교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 중 악기 배우기는 예비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현직 유아교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박수경, 여선옥, 2018). 그리고 이러한 악기연주 실력이 교사의 음악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한 가지 악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재능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매우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영유아 음악교육의 목적이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에 있지 않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음률영역에서 나타난 유아 또래간 교수의 의미를 연구한 여선옥, 박수경(2017)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들의 또래 교수는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하는데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음악수업에서 전문성은 교사와 유아들이 음악과 함께 즐겁게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교사의 음악의 전문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 음악수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 무엇인지, 필요한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예비교사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수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예비보육교사들이 악기를 배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반주매체들을 사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는 기회와 배우는 과정도 필요함을 제기한다.

영유아 음악수업을 위해 중요한 것은 교사 자신이 가르쳐야 할 대상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높은 전문성의 갭(gap)을 뛰어넘어 영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음악과 함께함으로써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실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보육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영유아 음악수업을 위한 전문성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이 교직의 전문성에 대해 긍정

적이고 높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보도 될 때,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적 자질을 문제 삼기보다 보육교사 및 돌봄교육 전반적인 수준과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육교사 뿐 아니라 교육 관계자 대부분이 보육교직에 대한 회의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영유아들은 교사의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모델로 삼고 생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제도 안에서 보호 받고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예비보육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교과목들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이 과목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실기를 병행해야 하는 음악 교과목의 경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전, 후 시기가 고려되어야 하며, 영유아 음악교육 교과목 구성의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에 대한 예비보육교사들의 담론 분석을 통해 예비보육교사들이 생각하는 영유아 음악수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 무엇인지,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예비보육교사를 위한 음악교육에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대상이 연구자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 질적인 분석으로만 이루어졌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음악수업 전문성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는 양적인 연구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원미, 문혜련(2017). 영아반 보육교사의 MBIT 성격 유형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인식. **한국보육학회지**, 17(2), 137-158.
- 국립국어원(2014). **표준 대 국어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 권은라(2008). 음악감상을 통한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 창의성과 언어표현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8(1), 49-68.
- 권혜경(2014). 유치원 교사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업 포트폴리오 모형 개발 및 적용에서의 협력적 실행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자(2004). 포괄적 음악교육에 기초한 유아의 음악적 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난실, 권수현, 이승연(2013). 보육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자기인식과 실제 이해 간의 관계 및 변인별 차이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0(1), 281-304.
- 김미정, 이숙희(2011). 사회, 정서 통합에 기초한 영아 음악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5(5), 359-382.
- 김민성(2012). 국제학교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한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제13차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2(1), 211-222.
- 김소향, 안경숙(2009). 음악 교육내용 영역에 따른 유아 교사의 교수 방법 실제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 음악교육연구**, 36, 29-54.
- 김수임(2012). 유아들에게 있어서 '음악하기'의 의미. **한국 콘텐츠학회**, 12(11), 527-538.
- 김안나(2013a). 유치원 교사가 경험한 수업컨설팅의 의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347-366.
- 김안나(2013b). 유치원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전문성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4(3), 153-175.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태연(2015). 예비보육교사의 전공과목 수강에 따른 보육 교사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5(3), 193-209.
- 김하중(2015). 유치원교사의 수업 전문성 관련 변인간의 구조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숙(2010). 자진모리장단에 대한 초등교사의 PCK연구. **음악교육연구**, 39, 77-100.
- 남옥선(2007). 음악활동이 영아의 사회, 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4(2), 18-40.
- 모용희, 김규수(2013). 유아교사의 교직전문성과 교직 신념에 관한 인식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241-260.
- 박미경, 엄정애(2008). "새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다루고 있는 유아교사의 음악적 개념지도의 어려움. **아동학회지**, 29(3), 93-113.
- 박부숙, 임명희, 박운조(2017). 통합적 음악감상을 통한 유아 소그룹 동시짓기 활동의 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7(4), 233-258.
- 박수경, 여선옥(2018). 음악수업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유아교사들의 경험과 그 의미.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123-145.
- 박은영(2012). 교사용 유아 음악적 태도 검사도구 개발. **예술교육연구**, 10(1), 15-29.
- 박은혜(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수업 사례집. **이화교육총서**, 2003(8), 1-83.
- 박재우(2012). 미디어에 나타난 학교 체육 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9), 434-446.
- 방은영(2009). 음악교육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한 유아 교사의 음악 교수 실제의 변화과정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365-395.
- 배희진(2009). 음악적 요소 중심의 감상활동이 유아의 음악능력 및 신체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3(2), 91-114.
- 사영숙(2017). 수업전문성을 추구하는 영유아교사의 학습 공동체 경험 탐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정애, 송정, 박미경(2009). 교사를 통해 본 유치원 현장의 음악교육과 실행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29(1), 133-158.
- 여선옥, 박수경(2017). 자유선택활동시간의 음률영역에서 나타난 유아 또래 간 교수의 의미. **한국영유아보육학**, 103, 23-44.
- 염지숙(2011).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의 유치원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유아교육학논집**, 15(6), 295-310.
- 윤지영, 임승렬(2011). 유아교사의 음악수업과 교수방법에 대한 실제적 연구. **음악교육연구**, 40(1), 113-141.
- 이 경(2002).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수행 인식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연, 조성기, 권덕원, 민경훈, 최은식, 한윤이(2007). **초·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미경, 이시자(2014).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137-161.
- 이영애(2010). 4-5세 유아의 음악 장르별 선호도. **유아교육학논집**, 14(5), 79-98.
- 이인아, 이완정(2015). 교사의 창의적 인성이 영아반에서의 음악경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3), 1-17.
- 이효숙, 심성경(2001). 유아음악극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지도실태. **유아교육연구**, 21(3), 267-292.
- 임동호(2012).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2(1), 1-17.

- 임부연, 오정희(2009). 유아교사와 아이들의 “생명의식” 성장에 관한 의미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371-396.
- 임부연, 이정금, 송진영(2014).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수업설계 및 적용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8(3), 505-524.
- 임승렬(2009). 유아교사 수업전문성 신장의 실제. **열린 유아교육연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5), 11-36.
- 장근주(2011). 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인식. **음악교육공학**, 13, 41-58.
- 장윤정, 황윤숙(2017). 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 수준 및 민감성 수준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차이: 만3-5세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7(2), 181-203.
- 장은주(2007). 현직교사를 위한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정륜(2013). 유아교사의 음악교수불안과 관련요인과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원(2012). 음악 인지능력 신장을 위한 음악학습활동 구성방안 연구. **예술교육연구**, 10(1), 149-171.
- 정태범(2002). **교원교육의 방향과 과제**. 서울: 양서원.
- 조희진(2010). 미디어에 나타난 의류 재활용 관련 담론과 사회적 논의 방식. **실천민속학연구**, 16, 121-165.
- 최승현, 황혜정(2009). 교수내용지식(PCK)에 기초한 수업 컨설팅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2(1), 911-115.
- 최연철(2007). 유아교육에서의 ‘통합’에 대한 논의. **교원 교육**, 23(3), 115-124.
- 최진령, 이연승(2010).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교직 전문성에 관한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5(1), 335-360.
- 한수용(2007).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교사의 교육의 자유. **저스티스**, 101, 36-59.
- 현경실(2003). 신체표현을 위한 음악놀이 개발과 수업에의 적용방안. **음악과 민족**, 26, 469-487.
- 홍찬의(2014). 교육 계획에 내재된 유치원 교사의 수업 전문성 탐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인주, 김희진(2008). 만 2세 영아반에 적절한 음악 경험이 음악적성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8(6), 65-90.
- Aoki, T. (2005). Sonare and Videre: A story, three echoes and a lingering note. In William F. Pinar & Rita L. Irwin Mahwah (Eds.). *Curriculum in a new key the collected works of Ted T. Aoki, [electronic resour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llantyne, J., & Packer, J. (2004). Effectiveness of preservice music teacher education programs: Perceptions of early-career music teachers. *Music Education Research*, 6(3), 299-312.
- Bogdan, R. C., & Biklen, S. K. (2006).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 (5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Bradbury, A. (2012). ‘feel absolutely incompetent’ Professionalism, policy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13(3), 175-186.
- Carlgren, I. (1999). Pedagogy and teachers’ work. *Nordisk pedagogik*, 19(4), 223-234.
- Danielson, C. (2007). *Enhancing professional practice: A framework for teaching*.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Perigee Books.
- Evans, L. (2008). Professionalism, professionalism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fessional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6(1), 20-38.
- Freire, P. (2000). **기꺼이 가르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프레이리의 교사론**(교육문화연구회역). 서울: 아침이슬. (원저 1998 출판).
- Glatthorn, A. A. (1997). *Differentiated supervision*.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Hedges, H., & Cullen, J. (2005). Subject knowledge in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pedagogy: Beliefs and practices.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6(1), 66-79.
- Hodges, B., Ginsburg, S., Cruess, R., Cruess, S., Delpert, R., Hafferty, F., ...Wade, W. (2011). Assessment of professionalism: *Recommendations from the Ottawa 2010 Conference*. *Medical Teacher*, 33(5), 354-363.
- Kim, J. (2004). The musical teacher: *Preparing teacher to use music in the childhood classroom*. Dubuque, IA: Kendall Hunt Publishing.
- Lee, Y. (2009). Music practices and teachers’ needs in preschools of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7(4). 356-371.

- Levinowitz, L. M. (2001). Golden age for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Teaching Music*, 93, 40-43.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Inc.
- Pearson, C., & William, M.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utonomy and stress, work satisfaction, empowerment, and professionalism.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29(1), 38-54.
- Scott-Kassner, C. (1999). Developing teachers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Music Educators Journal*, 86(1), 19-26.
-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3rd ed).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Shawer, S. F. (2010). Classroom-level curriculum development: EFL teacher as curriculum-transmitt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 173-184.
- Shawer, S. F., Gilmore, D., & Banks-Joseph, S. R. (2008). Student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classroom-level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8(1), 1-28.
- Temmerman, N. (2000). An investigation of the music activity preferences of pre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17(1), 51-60.
- Tschannen-Moran, M. (2009). Fostering teacher professionalism in schools: The role of leadership orientation and trust.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45(2), 217-247.

Analysis of the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s' Discourse on the Professionalism of Music Classes for Infants and Children

Sun Ok Yeo

Docent, Dept. of Child Educare Welfare, Hanyang Women's University

Yun Hee Sim

Professor, Dept. of Child Educare Welfare, Hanya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s' discourse on the professionalism of music classes infants and children.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argeting second-yea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welfare at the H university in S city.

Methods: The resul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methods of Bogdan and Biklen (2006).

Results: The results of interviews showed, the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s felt that it was too soon to talk about their professionalism and teachers' professionalism needed further education and experience in the field. Additionally, regarding the professional music classes, the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s were suggested to require the knowledge of infants' individual development, difference and interest. Secondly, to be able to comply with the national curriculum and build an integrated education plan based on the themes that of infants and children' interests. Thirdly, to be familiar with the teaching methods guiding what to teach and how to teach. And in order to possess such expertise, the discourse suggested that the teachers should enjoy music themselves, learn musical instruments to develop their musical abilities, and have a variety of artistic experiences. In spite of their efforts, if they do not meet the needs, they should overcome by co-operating with their colleagues rather than giving up the music classe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presents the practical direction of music education for the prospective child care teachers.

Received July 30, 2018

Revision received August 23, 2018

Accepted September 6, 2018